

전북자치도, 남원서 을지연습 실제 훈련 실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테러 상황 종합 모의훈련… 제3차 통합방위회의 연계로 지역안보 역량·협력 체계 종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으로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전북경찰청, 35사단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보건소, 남원의료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펌프차·구급차·대테러 장비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또한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

의회 의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광석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전북도 통합방위위원 및 주요 유관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실제훈련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와 연계해 진행되었으며, 통합방위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지역 안보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훈련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을 테러범이 점령한 상황을 가정해 △테러 상황 발생 및 전파 △군특임대·경찰특공대 건물 진입 작전 △미상 드론 위협 무력화 △폭발물 및 화재 대응 △부상자 이송과 방역활동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훈련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 기간(18일~21일)에 맞춰 실시되는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실제 훈련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20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덕춘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관영 도지사,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모은다

도·전북지방변호사회,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협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전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

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도지사는 "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남원종합스포츠타운 테러 대응 훈련)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광석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전북도 통합방위위원들이 테러 상황 가정한 종합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수군의회, '2025년 을지연습' 현장 방문… 근무자 노고 치하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19일, '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에 마련된 을지연습 전 시중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상황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을 비롯해 군·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한주 의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흘간 밤낮으로 계속되는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국가비상사태 대응 능력 제고라는 소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및 전사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8~21일까지 나흘에 걸쳐 실시된다. /장수=고편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임종명 도의원, 남원 발전 위해 시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지역 역사·문화 가치를 지키는 의정활동 소개 등
"기후 위기 선도 모델 도시화로 삶의 질 개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19일 늦은 오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원의 발전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임종명 의원의 학생운동·노동현장·기업활동·시민운동을 거쳐, 생활정치인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정치와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다.

임종명 의원은 "그동안 지리산 노래패 단장과 남원시 섬진강 수해피해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성 이후 △춘향영정 논란 해법 모색 토론회 △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늦은 오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남원의 발전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촌활성화를 위한 위그힐리데이 세미나 △기초소득제도 연구회 세미나 등 추진,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119구급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자원순환 기본 조례 등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고 채상순 순직 사건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특검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또한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피해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5분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원 만인의총의 역사왜곡 문제 역시 후손과 남원시민의 자존과 정체성에 직결되는 일인 만큼, 역사적 진실 반영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원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기후위기 선도 모델 구축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산림·생태 정책 강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안전' 판정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도내 27개 골프장의 토양 160건과 수질 77건을 채취해 총 27종의 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농약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 관리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농약 7종만 일부 검출돼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골프장 유출수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생태독성 검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 '불검출'로 수생태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환경부와 시·도별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차례 실시된다.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는 우기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농약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현재 시료채취를 진행 중이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여가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원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20일 원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아울러 자치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